



“천공 관저 이전 개입설, 내 기록이 맞다”

부승찬 전 대변인 김만덕기념관서 북콘서트 개최 “주변 관심이 큰힘... 형사고발 당당하게 맞서겠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 역설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내놓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주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 자리에서도 “아직도 제 기록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제주도 김만덕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 전 대변인은 패널과 저자 간 토크쇼에 이어진 저자와의 대화의 시간에서 ‘천공 의혹 제기’ 뒷이야기를 묻는 질문에 “아직도 저의 기록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고 저한테 (천공 관련)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원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에서) 천공 관련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내용의 핵심은 천공이었기 때문에 부제목을 천공 의혹으로 뽑았다”면서 “천공이 다녀갔다”는 총장에게 공격인 영역에서 들은 얘기를 그 밑사람에게 확인하는 것도 불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체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 전 대변인은 폐쇄회로(CC)TV 기록과 관련해 “최근 국방부 장관이 CCTV 기록이 삭제됐다고 했다”면서 “장관이 그렇게 얘기 했기 때문에 (CCTV) 기록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로부터 형사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이버수사대에 고발돼 있는 상황으로 아직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얘기는 못받았다”면서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외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견딜만하다. 이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큰 힘이 된다. 그래서 형사고발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전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작년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

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부 전 대변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제주 세화고와 공군사관학교, 연세대 대학원을 졸업한 부 전 대변인은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2022년 4월 제주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부승찬 전 대변인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북콘서트가 19일 제주도 김만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상국기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시급”

도의회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 관련 토론회 개최

보육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지난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은정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제주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의 권익 보호는 곧 안정적인 보육 노동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실태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보육교직원의 교육과 상담은 영유아의 인권존중의 아동학대예방의 범위를 넘어 보육교직원의 정신·심리적 상담 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로 참석한 김정연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원아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많아 잇따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밖에 영유아 대교사 비율 조정, 보육교사 업무량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 교체 ‘논란’

도, 수탁관리단체로 한국지체장애인협 선정

제주도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주체가 23년만에 전격 교체되면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23일로 민간위탁 관리가 끝나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자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시)를 선정하고 지난 15일자로 공고했다.

탐라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0년 개관 후 23년간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한정호)가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다. 최근 전 제주

자치도의회를 지낸 고현수 씨가 관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도장애인총연합회는 이번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회원단체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뒤 이번 조치에 대해 대응할 예정이다.

도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제주도내 장애인들의 대표 단체로 지역의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단체를 제쳐두고 수탁기관으로 외부단체를 선정한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이재명, 당 내 초선과 간담회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한규 의원(제주) 등 당 내 초선 의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어제 저녁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양한 성향과 배경의 의원들이지만 현재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았다”고 모임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부미현기자

청년정책 결정은 ‘청년 스스로’

도, 제1기 청년주권회의 위원 위촉식 개최... 활동 돌입

청년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결정한 청년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실질적인 청년주권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제주청년주권회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제주도는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 위촉식이 지난 18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렸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제7기 청년원탁회의의 참여자 20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2월 3일까지 1년여 간 운영된다.

위원 구성은 청년원탁회의의 청년위원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청년원탁회의의 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선발됐으며, 제주청년주권회의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인사말을 통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

년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청년주권회의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열정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제1기 제주청년주권회의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예산제 도입 청년자율예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발굴한 청년정책을 당해연도에 집행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청년자율예산 규모는 3억 1000만원으로, 청년 대다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윤기자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2023년도 제31차 정기총회 안내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님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2023년도 제3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주변 동문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7시
- 장 소: 노팅힐 웨딩컨벤션(도두동)
- 안 건: - 2022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기타사항
- 연락처: 회장 김용남 010-8661-1820
사무총장 김재형 010-3698-7388
사무국장 조영기 010-4104-8556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용남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그랜드보청기

계묘년(癸卯年) 설날 고객사은행사!!
① 20만원 상당 산생배양금 ② 15만원 상당 UV전자습기(제거제)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1113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1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